

“연기 잘한다는 칭찬은 평생 들어도 안질려요”



배우 이병헌은 한결같다. 수십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늘 “연기 잘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고의 찬사인 동시에 긴장과 책임감을 불러 넣는 말이다. “연기 참 잘 하는” 그가 이번엔 영화 ‘백두산’ (작은 사진)을 들고 돌아왔다. 사진제공 | BH엔터테인먼트·CJ엔터테인먼트



어느덧 연기인생 30년 믿기지 않아 촬영 땀 늘 긴장...초심으로 돌아가 동반 출연 하정우 마동석에 큰 자극 기생충의 아카데미 본상 나도 응원



내년이면 배우로서 30년. 청춘스타로 출발해 한류스타가 됐고, 할리우드에서도 인정받았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한 시간, 배우 이병헌(49)은 뜨거운 인기만큼 우여곡절도 몇 차례 겪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평가가 있다. 다름 아닌 ‘연기’다.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2015년 ‘내부자들’, 지난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거치며 대중의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친 덕분에이다.

19일 개봉한 영화 ‘백두산’(감독 이해준·제작 맥스터스튜디오)에서도 어김없다. 한반도를 사라지게 만들 백두산 화산 폭발의 아비규환에서 단연 빛나는 인물, 이병헌이 연기한 리준평이다. 이날 오후 서울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의 눈에선 긴장과 기대의 빛이 교차했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이병헌은 수십편의 작품에 참여하면서 들을 만큼 들었는데도 여전히 ‘연기 잘 한다’는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30년이 됐더니(웃음), 정말 징그러울 만큼 믿기지 않네요. 데뷔 1년 밖에 되지 않은 기분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촬영장으로 향할 때 긴장도 되지만, 요즘은 기대가 더 커요. 한 작품, 한 작품으로 살아가니까요.”

이병헌은 제작비 260억 원대 재난블록버스터를 책임지는 배우로서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지만 재난영화 출연은 처음이다.

“공포물이나 재난극은 섯 손이 안 잡혀요. ‘백두산’은 조금 달랐어요. 늘 봐온 재난이 아니라 재난을 해결하려는 두 인물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정을 쌓아가는 버디무비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합이 잘 맞는다면 재미있는 재난영화가 나오겠다 싶었어요.”

이병헌은 ‘백두산’을 통해 명불허전의 연기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한다. 영화 제작진의 ‘신의 한 수’도 복한 무력부 소속 이종스파이 리준평을 이병헌에게 맡겼다는 점이다. 상대역인 하정우를 비롯해 마동석, 전혜진, 배수지 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지만 영화가 끝까지 힘을 유지하는 힘은 이병헌으로부터 나온다.

‘백두산’에 참여한 제작진과 배우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병헌은 철저하리만치 꼼꼼한 준비로 스태프까지 긴장케 했다. 아이디어를 내면서도 두 감독의 뜻에 맞췄다. 때때로 현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배우가 있지만 그는 “건강한 대화법”을 추구했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에너지를 쏟아낸 작품이지만 아쉬움이 없을 순 없다. 이병헌은 솔직담백하게 ‘백두산’의 단점도 짚었다. 시각특수 효과의 완성도가 관객의 눈높이에 맞을지, 하정우와 불가능한 작전을 실현하면서 드러내는 감정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등이다.

●‘남산의 부장들’부터 드라마 ‘히어’까지

이병헌이 올해 촬영을 마친 영화는 한 편 더 있다. 내년 1월 개봉하는 ‘남산의 부장들’이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이야기다. ‘광해’에 이어 실존인물에 다시 도전하는 이병헌은 이어 송강호와 손잡고 영화 ‘비상선선’ 촬영을 시작하는 한편 노회경 작가의 드라마 ‘히어’에도 출연한다. “하던 대로 할 뿐”이지만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

행보다.

“한 편을 찍고 나면 몇 개월 쉬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마음처럼 안돼요. 늘 ‘재미있는 이야기’에 마음이 끌려요. ‘남한산성’에서 신념을 가진 두 인물의 대결마저 저한테는 재미로 다가왔어요.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어떤 역할과 캐릭터든 중요하지 않아요.”

‘백두산’ 개봉을 앞두고 이병헌은 한 동안 미국에 머물렀다. 마침 영화 ‘기생충’이 북미에서 개봉한 시기였다. 현지에서 봉준호 감독과도 만났다는 그는 “현지 영화관계자들의 ‘기생충’에 대한 평가가 대단한 수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가진 미국 영화 예술아카데미협회 회원이기도 한 이병헌은 이미 2017년 한국배우로는 처음 시상자로 시상식 무대를 밟았다. ‘지.아이.조’, ‘매그니피센트7’ 등으로 할리우드에서 기반을 닦은 그로서는 ‘기생충’을 바라보는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외국어영화상 뿐 아니라 본상까지 넘보는 위상에 올랐다는 사실이 한국영화인으로서 정말 뿌듯해요. 당연히 저도 욕심나는 일이지요. 누군가 첫 발걸음을 떼면 다음에 도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이슈

3

2019년 12월 20·21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배구 미래 팔걸은 이재영 꿈나무 양성 천만원 기부

동아스포츠대상 상금 전액 쾌척



이재영

한국생명 ‘핑크 폭격기’ 이재영(23)이 배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1000만 원을 쾌척했다.

V리그 슈퍼스타의 품격을 한껏 드높였다. 한국생명은 “2019 동아스포츠대상에서 여자 프로배구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이재영이 상금 1000만 원을 배구단 연구지인 인천 지역 유소년 배구 발전을 위해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덕분에 영선초, 부평여중, 부개여고 배구 유망주들은 이재영의 특별한 선물과 함께 프로 선수를 향한 꿈을 키워 나가기에 됐다.

2018~2019시즌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를 휩쓸었던 이재영은 11일 동아스포츠대상에서 개인 첫 번째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당시 그는 “팬들에게서 받은 사랑과 관심을 배구에 돌려주고 싶다.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나와 배구가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며 상금을 유소년 배구를 후원하는데 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직접 손을 내민 이재영의 개인적 영예는 모두의 것이 됐다.

이재영은 여자 배구의 인기가 날로 치솟는 축제의 분위기에 취해있지 않았다. 종종 모교를 방문하며 옛뻘던 아마추어 배구의 여두운 면을 잊을 수 없었던 까닭이다. 팀정원이 6~7명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거나 최악의 상황에 다다라 해체되고 사라지는 배구부를 지켜보며 아쉬움을 곱씹어왔다.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에이스로서 책임감을 키운 이재영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유소년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김태권 기자 bong82@donga.com

제3회 부산 건축박람회

건축자재 / 전원주택 / 홈인테리어 / 주택·건축정보 / 주택·건축 관련 제품

2019 부산 사인·인쇄산업 박람회

디지털프린터 / LED / CNC 후가공 및 장비 / 3D프린터 / 사인 제작 자재 및 소모품 / 인쇄기기 / 인쇄기자재 등

제3회 부산 스포츠·레저산업 박람회

헬스·웨트니스 / 아웃도어 용품 / 등산 및 캠핑 용품 / 골프장비·용품 / 캠핑카·트레일러 및 용품 / 구기 스포츠용품 / 기타 스포츠 및 레저관련 용품

부산 벅스코 “3개 박람회” 동시개최

전시기간 2019.12. 20 (금) - 12.22 (일)
관람시간 10시 - 18시 (토·일요일도 동일)
전시장소 부산 벅스코 (제1 전시장)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지하철 부산 2호선 센텀시티역 1번 출구
부산 2호선 벅스코역 9번 출구

주최
관람문의

동아전람

Tel 02)780-0366
Homepage www.dong-afairs.co.kr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시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